

달러 下落과 美國産業의 競争力

技術調査室

미국 달러貨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경쟁력 회복에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술력 우위와 산업구조의 특성, 내수시장의 기반 등을 유지한 석유화학, 종이·펄프, 중·대형 컴퓨터, 항공·우주·방위, 정보서비스 등의 12개 업종은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그외의 업종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산업의 空洞化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美國의 主要 23業種의 현상을 보면 12業種의 경쟁력은 維持·強化되고 있으나 11業種에서 弱体化가 진전되고 있다. 特히 技術革新의 열쇠를 쥐고 있는 電子技術과 量産化 技術, 基礎素材인 鉄鋼, 加工精度를 좌우하는 工作機械와 같은 重要分野에서 두드러진 弱体化를 보이고 있다. 이의 要因은 国内市場 指向과 利益率 지향이라는 美國企業의 經營體質에서 찾을 수가 있다. 대폭적인 달러 下落으로 價格競争力이 회복된 産業도 있으나 生産基盤을 상실한 産業도 많으며 이들이 再起하는데는 時間을 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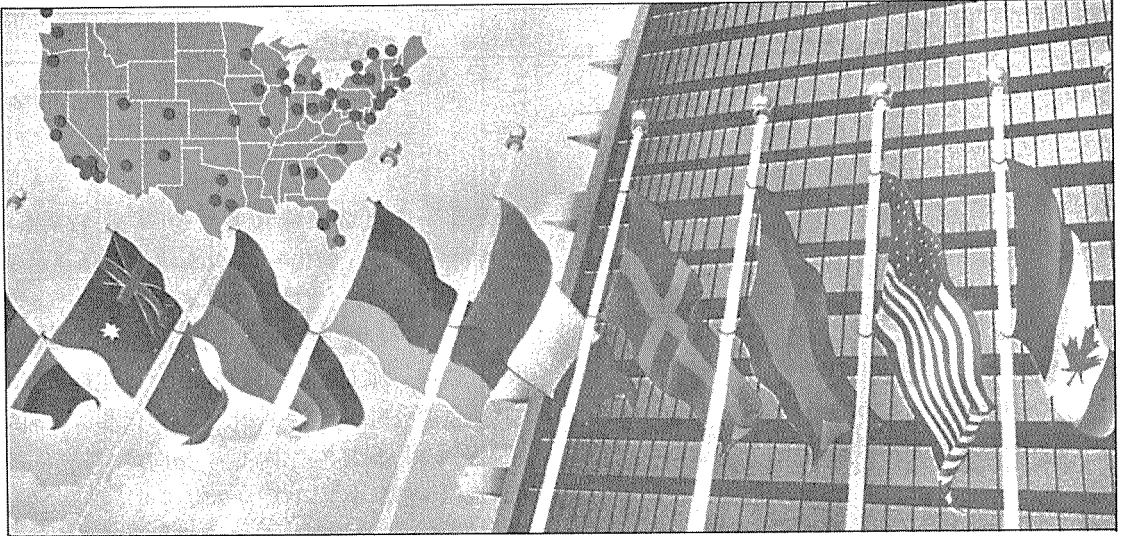
1. 石油化学 · 종이 등 12業種 好調

작년11월 이래 美國의 貿易赤字는 縮小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換率도 금년 들어 円下落으로 移行하여 약간 安定되고 있으나 과연 이 傾向이 定着될까. 그것은 오로지 美國産業의 Fundamentals (經濟의 基礎的 條件)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우리들은 작년 가을부터 美國産業의 國際競争力 評價를 위한 調査를 micro base까지 들어가서 실시해 왔다. 評價에 있어서는 各産業의 需給·収支動向은 물론 技術力, 成長力 나아가서 個別企業의 經營力 등 여러가지 面을 고려했다. 또 調査過程에서 실제로 美國企業을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도 보고 왔다.

調査에서 든 産業은 製造業을 중심으로 主要 23業種이며 内訳은 鉄鋼, 石油化学, 纖維 등 素材産業이 9業種, 自動車, 家庭用電子, 大·中型 Computer, 工作機械 등 加工組立産業이 12業種, 그리고 製造業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情報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非製造業 2業種이다.

調査結果에 의하면 23業種中 石油化学, 종이·펄프, 大·中型 Computer, 航空·宇宙·防衛, 情報서비스 등 12業種에서는 경쟁력은 維持, 強



미국의 달러貲까지 하락으로 경쟁력 회복에 업종별로 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化되고 있다. 그러나 鐵鋼, 衣類用 纖維, 半導體, 家庭用 電子, 自動車, 工作機械 등 11業種에서는 弱体化 하고 있다.

몇개의 個別業種을 소개하면 石油化學에서는 原料나 Energy Cost面에서 優位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資源國이 bulk(量產品) 分野에서 힘을 기르고 있으나 美國企業은 大規模의 Restructuring(事業의 再構築)을 통하여 高附加價值分野로 事業構成을 shift시켜 收益力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研究開發投資에 의해 技術力의 優位性을 保持하고 있다. 大·中型 Computer分野도 情報서비스 市場의 재빠른 成立과 成長, 方대한 Software의 蓄積을 배경으로 競爭力을 유지하고 있다. 월등한 競爭力을 가진 IBM을 중심으로 産業體制도 대단히 견고하여 海外메이커는 Hardware의 가격만으로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狀況에 있다.

2. 近代化 投資 뒤진 鐵鋼

한편 鐵鋼에 대해서는 73년에 1億3,700萬톤을 기록한 粗鋼生産量이 86년에는 1,400萬톤으로 激減했다. 이것이 나타낸 바와 같이 弱体化는 분명하며 日本이나 EC(歐州共同體) 등 主要 19개국에 의한 輸出規制아래에서 그런대로 연명하고 있는 狀況에 있다. 또 TV, 라디오, 스

테레오 등 家庭用 電子分野도 好調의 內需伸張에도 불구하고 輸入이 급증하여 弱体化가 두드러지고 있다. 70년대 초반 17社나 있었던 美國系의 TV 메이커는 이제 제니스社 1社에 불과하다.

半導體도 回路設計 또는 Soft 開發이 主体가 되는 Micro processing(演算處理)이나 Logic(論理)으로 불리우는 分野는 순조로이 生産을 늘리고 있으나 記憶素子는 生産의 대폭적인 減少가 불가피하다. 自動車는 內需, 生産 모두 82년을 바닥으로 回復基調에 있으나 輸入比率은 25%까지 擴大하고 있으며 美國의 Big three의 地位도 차츰 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쟁력의 評價는 業種間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技術革新의 根幹이 되는 Micro electronics 技術, 이를 지탱하는 半導體 記憶素子, 加工精度의 열쇠를 쥐는 工作機械, 가장 기본적인 素材인 鐵鋼, 그리고 加工組立産業 全般에서 필요로 하는 量産化 技術 등 중요한 分野에서 弱体化가 進行되고 있다.

물론 製造業만이 産業은 아니다. 美國産業社會는 成熟化 단계에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商品(物件)으로부터 서비스로 옮겨져 서비스 産業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Micro electronics를 주축으로 하는 技術革新이 製造

業, 서비스 産業을 불문하고 모든 産業에 浸透하여 技術面에서의 優位性이 競爭力 強化의 源泉이 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하면 이같은 分野에서의 弱体化는 過小評價할 수 없다.

弱体化의 이유는 業種에 따라 모두가 틀린다. 예를 들면 鐵鋼은 近代化 投資의 뒤짐과 한때의 달러 上昇에 의한 勞務費, 原料費의 增加가 主要因이다. 家庭用 電子分野는 日本, 韓國, 台灣 메이커에 대해 生産性이나 品質面에서 뒤지고 VTR 등 商品開發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또 半導體는 微細加工技術, 收益率, Cost 면에서의 뒤짐이, 自動車는 國際的인 價格競爭力 저하에 더하여 石油波動後 需要構造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主因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 共同되는 문제는 美國企業의 經營體質, 즉 巨大한 國內市場 指向과 利益率 指向이다.

3. 時間이 걸리는 基盤構築

美國企業은 바로 옆에 巨大한 國內市場이 있기 때문에 Marketing의 重要性이 國內에 두어져 海外市場은 2次的인 위치에 있다. 이때문에 國內市場이 縮小했을 경우에는 그 分을 輸出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國內의 다른 製品 分野로 事業을 전개하는 행동을 취하기가 쉽다. 이는 國內市場의 縮小가 그 業種의 競爭力 弱体化에 직결하기가 쉬움을 示唆하고 있다.

石油化學이나 大·中型的 컴퓨터, 반도체의 Micro processing unit 등이 國內需要의 伸張에 지탱되어 競爭力을 유지하고 있는 半面, 鐵鋼이나 農業機械 등은 國內需要의 축소를 배경으로 잇달아 철수했기 때문에 競爭力이 低下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企業自身的 價值判斷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業界의 發展과 같은 문제에 잡히는 일은 없다. 희박한 業界意識, 활발한 事業部門의 分離·取得이기에 業界에서의 Share 등은 그다지 重視되지 않으며 PER(株價收益率)이 몇배라든지, 利益率이 몇%라는 것이 價值判斷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現在의 事業分

野에서도 利益率이 떨어지면 다른 分野로 간단히 轉換한다.

한 예를 들면 美國의 加工組立分野에서는 情報化, Shift化의 進展과 더불어 大型機로부터 中·小型機로라는 需要構造의 변화가 進行하고 있으나 小型機分野는 日本메이커 등과의 경쟁이 심하여 利益率이 떨어지기 쉽다. 이 결과 쉽게 철수하게 되고 市場을 내주고 있다. 需要의 伸張이 높은 家庭用 電子나 工作機械 등 分野에서 美國메이커의 競爭力이 弱体化하여 生産基盤이 대폭 縮小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美國産業의 競爭力 評價

分 野	區 分	内 需	生 産	輸 出 入	企 業 支 出
▽維持·強化					
알루미늄 연장		○	○	×	△
石油化學		○	○	○	○
醫 藥 品		○	○	○	◎
非衣類用 纖維		○	○	×	○
종이·펄프		○	○	×	○
石油精製		△	△	×	○
大·中型 컴퓨터		◎	◎	○	◎
通信機(無線機器)		◎	◎	×	○
半導體(MPU)		◎	◎	○	△
原子力機器		△	△	△	◎
航空·宇宙·防衛		○	○	◎	◎
情報서비스		◎	-	-	◎
▽弱体化					
鐵 鋼		△	×	×	×
알루미늄精鍊		△	×	×	△
衣類用纖維		○	×	×	○
家庭用電子		◎	○	×	○
퍼스널컴퓨터/周邊機器		◎	×	×	◎
半 導 体(DRAM)		◎	×	×	△
自 動 車		○	○	×	◎
工作機械		×	×	×	×
建設機械		○	×	△	△
農業機械		×	×	△	×
엔지니어링		×	×	-	×

【凡例】 80年代의 變化

	(內需)	(生産)	(輸出入)	(企業収支)
◎	···大幅增加	大幅增加	出超進展	黒字擴大
○	···增加	增加	出超維持	黒字保合
△	···停滯	保合	均衡	減益基調
×	···減少	減少	入超進展	赤字基調

그러면 美国産業은 대폭 달러下落으로 일어설 수가 있을까. 분명히 競争力이 이기는 産業에서는 달러下落은 競争力을 회복시키는 든든한 材料가 된다. 鉄鋼, 纖維 등은 이 부류에 들어간다. 또 달러上昇時代에 海外로 나간 美国 메이커의 国内回帰現象도 建設機械分野 등 몇가지 分野에서 볼 수가 있다. 이에 더하여 美国 企業도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日本 企業의 美国進出을 계기로 Just in time (在庫 Zero)方式 등 日本的인 經營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海外市場開拓에 전력을 기울이는 企業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弱体化한 産業에는 예를 들면 半導體 記憶素子와 같이 이미 美国系 資本이 技術力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든지 家庭用電子와 같이 주변의 産業組織이 해체된 것이 많다. 상실한 技術

力, 生産基盤의 再構築에는 당연하지만 시간이 걸릴것 같다.

따라서 当面은 계속 달러下落基調가 계속될 것이고 貿易摩擦의 불씨도 꺼질것 같지가 않다. 모든 分野에서의 対日市場 開發要求가 높아짐과 동시에 輸出自律規制強化의 要請, 反 dumping 規制, 기타의 報復措置가 잇달아 나올 우려가 있다. 이 결과 日本企業의 美国進出도 한층 가속된다.

日本産業의 美国進出이 진전되면 다음은 日本国内的인 生産基盤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産業의 空洞化」이다. 이러한 面에서 日本은 美国産業의 弱体化를 본받으면 안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内需擴大策이 必要하다.

〈世界 CD (소프트) 業体 現況〉

지역	업 체	생 산 능 력
美 洲	레이저 비디오	美 California (200~300만 枚), Alabama (2,500만枚)
	워너 커뮤니케이션즈	美 Pen. (2,100만枚, 西独 工場과의 合計)
	필립스 듀폰 옵티컬	美 N.Calo. (1,500~1,600 만枚)
	캐피탈 EMI	美 Ill. (1,000만枚)
	메모리 테크	美 Ari. (1,200만枚)
	네스터 인터네쇼날	美 NY (1,000만枚)
	CBS 레코드	美 N.J.
	레이저 로직	美 CA (720만枚)
	3M	美 Wis
	컴 디스크	美 CA (3,500~5,000만枚)
	US 디지털 디스크	美 NY
	플렉시스 테크놀로지 (캐나다)	加 Ont. (2,500~3,000만枚)
美 洲	아메릭 디스크 (캐나다)	加 Que. (1,000만枚)
	신램 리미티드 (캐나다)	加 Ont.
	폴리 폼 (브라질)	브라질 상파울로
西 歐	필립스 듀폰 옵티컬	西独 (7,500만枚), 佛 (2,000만枚), 佛 (200만枚)
	MPO	佛 (200만枚)
	EMI	英 (1,500만枚)
	버진 그룹	英 (150만枚)
	소노플레이스	西独 (2,500~3,000만枚)
	워너 커뮤니케이션즈	西独 (2,100만枚, 美国工場과의 合計)

지역	업 체	생 산 능 력
日 本	ICM	스위스 (900만枚)
	DOC 디스크	네덜란드
	듀레코	네덜란드
日 本	CD 플랜트	스웨덴
	스프라폰	체코
	CBS 소니	日, 大井川町 (4,800만枚)
	日本 콜롬비아	日, 川崎市, 浜松市, 白河市 (3,000만枚, 합계)
	東芝 EMI	日, 御殿場市 (2,000만枚)
	日本 Victor	日, 大和市 (4,000만枚)
	三洋電機	日, 安八町 (1,500만枚)
	씨·티·에	日, 中道町 (1,200만枚)
	파이오니아	日, 田富町 (600만枚)
	메모리테크	日, 明野町 (600만枚)
	옵트 롬	日, 仙台市 (550만枚)
	東燃石油化学/울텍	日, 太田市 (60만枚)
日 本의 海外現 地法人	DADC (소니)	美 Ind. (6,000만枚), 오스트리아 (1,200만枚)
	DDI (日本 콜롬비아)	美 Jor. (1,800만枚)
	JVC America Sanyo Laser Products (三洋電機)	美 Ala. (1,200만枚) 美 Ind. (500만枚)
아시아 오세아 니아	SKC (鮮京化学)	韓國 (360만枚)
	金星社	"
	深圳 Hitech Laser Video公司 (필립스) 디스크 트로닉스	中共 深圳 호주 멜버른 (3,600만枚)